

## 고석규의 죽음의 세계와 여백의 사상

정 원 숙\*

### 차 례

- |                                      |                                     |
|--------------------------------------|-------------------------------------|
| 1. 들어가는 말                            | 4. 허무의식과 자기소외가 내면화된 죽음의 세계          |
| 2. 전쟁체험을 통한 인간의 폭력성과 휴머니즘 상실에 대한 절망감 | 5. '청동시대'의 반항의식과 '여백'의 사상: 결론을 대신하여 |
| 3. 죽음의 유한성에 대한 불안과 허무, 자기소외의식        |                                     |

### 국문초록

본 연구는 고석규 시에 나타나는 공포와 불안, 죽음의 세계를 고찰하고자 하였다. 고석규는 개인의 사상적 이유로 인하여 어린 나이에 월남하여 군인으로 직접 전쟁에 참여하였다. 고석규가 전쟁을 통하여 느낀 공포와 죽음의식은 전쟁에서의 타자의 죽음에 직면하면서 자신도 곧 죽을지 모른다는 두려움으로부터 촉발된 것이다. 전쟁에서 체험한 인간의 폭력성과 휴머니즘의 상실감은 그의 내면 깊이 각인되어 끊임없이 그를 고통스럽게 만들었고, 그는 죽은 자와 산 자가 공존하는 부조리한 현실 속에 내던져졌다. 이러한 부조리는 그에게 극심한 불안감을 야기하였는

\* 강원대학교 박사 수료

데, 이 불안은 웃음과 울음의 양가적 양상으로 표출된다. 그 양상은 자기 방어, 카타르시스, 광기 등으로 다양하게 발현된다. 고석규는 불안 속에서 자신이 죽음으로 향하고 있는 존재라는 사실을 깨닫고 인간의 유한성인 죽음에 대한 허무와 자기 소외감을 절감한다. 또한 그는 폐허가 되어 버린 도시의 거리를 방황하며 수많은 주검과 공포와 맞닥뜨린다. 그리고 자신의 육체를 파편화된 상태, 불구의 상태로 인식하면서 자신의 정신은 이미 죽어 있으며, 육체 또한 망가질 대로 망가진 상태로 인식한다. 그리고 그는 삶이 무엇인지, 죽음이 무엇인지에 대해 골똘히 사유한다. 이러한 사유 속에서 그는 자신의 내면에서 침묵의 형식으로 들려오는 양심의 소리를 듣는다. 그것은 죽음으로부터 도피할 것이 아니라 죽음과 대면하여 죽음에 대해 반항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것은 바로 죽음의 선구(先驅)였다. 그리고 그는 시의 길을 뛰어넘어 비평의 세계로 나아간다. 그것은 시에서 이루지 못한 공포와 죽음의 세계를 재인식하기 위함이었다. 고석규는 죽음이 아무 것도 없는 무(無)가 아니라 침묵으로 존재하는 여백, 부재로 존재하는 여백으로 파악한다. 이 여백으로 인하여 인간은 그 여백을 채울 수 있는 존재의 가능성을 획득할 수 있기 때문이다. 여백의 사상을 바탕으로 한 그의 글쓰기는 공포와 불안과 부조리를 초월하고 죽음을 초월할 수 있는 하나의 가능성이었다.

주제어 : 전쟁, 공포, 불안, 죽음, 절망, 부조리, 허무, 자기소외, 여백

## 1. 들어가는 말

고석규)는 1950년대 전후 현실의 참혹하고 비극적인 삶을 실존적 인

1) 고석규는 1932년 9월 7일 함경남도 함흥에서 태어나 1958년 4월 19일 심장마비로 스물여섯의 나이에 세상을 떠났다. 부산대학교 국문과와 대학원을 졸업했고, 대

식을 바탕으로 하여 공포와 죽음의 세계를 보여준 시인이다. 그러나 그가 차지하는 한국 문학사의 위치는 변방의 시인 그 자체였다. 그는 월남(越南) 한 이후부터 스물여섯이라는 젊은 나이로 요절할 때까지 부산이라는 지역을 벗어나지 않고 자신만의 작품 세계를 꾸준히 지켜나갔기 때문이다. 고석규 문학의 키워드는 전쟁체험<sup>2)</sup>과 공포, 그로테스크<sup>3)</sup>이며, 고석규에 대한 연구 또한 이러한 세 가지 키워드 속에서 진행되어 왔다. 고석규의 전쟁체험과 죽음의식의 특성은 같은 시기의 박인환의 감상적センチ멘털리즘이나 전봉건의 후기 시에서의 생명성과 민족의식에의 추구경향과는 많은 변별점을 보여준다. 박인환의 전쟁체험은 간접적이고 피상적인<sup>4)</sup> 반면, 고석규의 전쟁체험은 현장에 있는 듯 한 사실적인 묘사와 인간의 '내면성'을 깊이 추적하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장중한 산문형식에서 뿔어져 나오는 공포의 극적 형상화와 육체의 불구화의 양상을 통한 불안과 자기소의 의식, 그로테스크한 이미지의 시적 형상화는 고석

---

학 제학 시 『新作品』, 『詩湖』, 『詩研究』 등의 동인지를 펴냈다. 1957년 김재섭 씨와 함께 2인 사회집 『초극』을 간행하였고, 그 해 『文學藝術』에 평론 『시인의 역설』을, 1958년 『현대문학』에 『시적 상상력』을 발표하였다. 저서로는 유고시집 『청동의 관』(1992, 지평), 『여백의 존재성』(1990, 지평) 등이 있고, 2012년 『고석규 문학전집 1-5』(마을, 2012)이 출간되었다.

2) 김경복, 『자폐와 심연에서의 빛 찾기』, 『오늘의 문예비평』, 1993 겨울호 참조. 박태일, 『전쟁 속에 얼어붙은 꽃봉오리』, 『고석규 문학전집 1』, 마을, 2012, 258-263쪽 참조.

하상일, 『1950년대 고석규 시 연구』, 『한국문학이론과 비평』 제23집, 한국문학이론과 비평학회, 2004.

3) 조영복, 『공포 체험의 시적 변용과 그로테스크의 시』, 『한국현대문학연구』 3집, 한국현대문학연구회, 1994.

박슬기, 『한국 전후시의 그로테스크 시학연구: 박인환·고석규·전봉건을 중심으로』, 서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4.

4) 이영섭, 『50년대 남한의 현실인식과 시적현상』, 『1950년대 남북한 문학』, 평민사, 1991 참조.

‘センチ멘털(sentimental)’은 ‘정서적인, 감상적인’이라는 뜻이다.センチ멘털리즘은 18세기 후반 유럽의 교양 사회에서 유행했는데, 지나친 감정 과잉으로 이성을 잃어버리는 부작용을 낳기도 했다. 우리말로 옮기면 ‘감상주의’라고 한다.

규만의 독특한 시학이다.

50년대 모더니즘 문학의 양상을 밝히는 데 있어 중요한 키워드는 원체험으로서의 ‘전쟁체험’<sup>5)</sup>이다. 50년대 모더니스트들에게 6·25 전쟁의 ‘내적 체험’<sup>6)</sup> 양상은 그들의 의식에 물질적·정신적 상처를 안겨주었다는 점에서 문제적<sup>7)</sup>이라 할 수 있다. 이러한 맥락에서 김윤식은 고석규의 시학을 ‘청동시대의 시학’<sup>8)</sup>이라고 규정하였다. 특히 고석규의 ‘내면성’의 투사가 ‘파아란 상화’를 통해 죽음에의 초극의지를 피워 올리도록<sup>9)</sup> 하였다는 논의와, 전쟁체험으로 인한 상실의식과 윤패의식은 실존의 물음을 유발하였다<sup>10)</sup>는 논의는 전쟁체험의 내면화가 자폐와 자아상실을 통과한 심연에서의 빛 찾기<sup>11)</sup>와 절망과 부조리를 통한 실존의 고백<sup>12)</sup>이라고 보는 견해와 동일한 관점을 보여준다. 특히 조영복<sup>13)</sup>은, 고석규 시의 극적인 산문시와 그로테스크 이미지, 초현실주의적 이미지는 공포를 더욱 부각시키고 있으며, 이를 통해 발현되는 절망의식과 윤패의식, 무의식과 내면에 대한 집착은 50년대 시사에서 독특한 위치를 차지한다고 말한다. 박슬기<sup>14)</sup>는 박인환의 주체는 박제화된 주체로서, 고석규의 주체는 내면의 갈등으로 인해 변환되는 주체로서, 전봉건은 외적 갈등으로 인한 분열된 주체의식을 발현한다고 말한다. 이러한 논의들은 고석규 시의 모더니티의 특징을 명징하게 드러내고 있다는 점에서 중요한 가치를

5) 조영복, 『1950년대 모더니즘 시에 있어서 ‘내적 체험’의 기호화 연구』, 서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1992.

6) 조영복, 『한국 현대시와 언어의 풍경』, 태학사, 1999, 193쪽.

7) 위의 글, 184쪽.

8) 김윤식, 『전후문학의 원점』, 『문학사상』, 1992. 7월호, 『고석규 문학전집 1』 참조.

9) 김윤식, 『50년대 비평 감수성의 기원-고석규의 정신적 소묘』, 『한국 현대문학사상사론』, 일지사, 1992.

10) 하상일, 『고석규 문학의 근대성 연구』, 부산대학교 석사학위논문, 1999.

11) 김경복, 『자폐와 심연에서의 빛 찾기』, 242-257쪽.

12) 박태일, 『전쟁 속에 얼어붙은 꽃봉오리』, 258-263쪽.

13) 조영복, 위의 논문 참조.

14) 조영복, 위의 논문 참조.

지낸다. 그러나 이러한 논의 이후에는 고석규에 대한 연구가 더 이상 진전되지 않고 있으며, 특히 본고에서 논의할 죽음의 세계에 대한 연구는 전무한 실정이다. 따라서 본 연구의 문제의식은 고석규의 실존의 가능성으로서의 죽음에 대한 시 의식과 여백의 사상에 대한 연구의 미진함을 어떻게 확대·재생산할 수 있을 것인가에서 출발한다.

## 2. 전쟁체험을 통한 인간의 폭력성과 휴머니즘 상실에 대한 절망감

6·25 전쟁은 미·소라는 강대국의 냉전의 이데올로기의 산물로서, 한국인들은 전쟁이라는 참상을 겪으면서 동족상잔이라는 비극적 역사 속에 내던져졌다. 니체의 ‘신의 죽음’이라는 실존적 명제는 공포와 불안 속에 내던져진 우리 민족의 자화상을 보여주는 것이었으며, 이러한 현실 속에서 고석규는 삶과 죽음, 선과 악, 불안과 반항의 근대 의식을 깨닫기 시작한다. 고석규의 전쟁체험은 군인으로서 직접 참전한 ‘공포체험’으로부터 비롯된다. 이러한 체험은 타자의 죽음에 직면하면서 자신에게도 불시에 덮쳐올지 모를 공포의식으로 내면화된다.

너의 몸으로 찌작찌작 학질균이 유행불처럼 괴로웠다//((.....)스쳐간 것은  
기총소사와 시한폭탄의 진동이었을 뿐(.....)//문득 시들어 웃었다//  
꿀물에 번질거리는 당신의 입가는 꽃처럼 피어 녹아

- <1950년> 부분

이 시는 모두 3연으로 구성된 산문시로서, 전쟁의 비극적인 참상과 삶과 죽음이 공존하는 현실을 구체적인 이미지로 형상화한 고석규의 대표적인 작품이다. 1연과 2연은 전쟁 중 부상을 당한 전우와 화자가 동굴에 대피해 있는 고통스럽고 두려운 정황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3연은 싸늘

한 전우의 시체를 끌어안고 전쟁의 폭력성으로 인한 죽음의 여백을 절감하는 화자의 내적 상태를 드러낸다. 이 시에서 공포는 ‘죽음의식’과 ‘생명의식’으로 대조를 이룬다. 전자는 “대피(待避)에 시달린 너의 몸”, “짜작짜작 학질균”, “열 식은 너의 머리채” 등의 시구로 형상화되며, 후자는 “촛불”, “푸른 지하수”, “당신의 입가는 꽃처럼 피어” 등의 시구로 형상화된다. 인간에게 죽음은 ‘타자’의 형상으로 다가온다. 이 시에서의 타자는 전우와 전우의 죽음 모두를 함축한다. 중요한 것은 ‘타자’의 존재가 화자에게 어떠한 인식을 가져다주며 어떠한 실존의 형태로 존재하느냐 하는 점이며, 또한 고석규가 타자의 죽음에 직면해서 표출하는 공포의식은 나도 죽을 수 있다는 심리보다는 ‘나는 왜 살아 있는가’, ‘인간은 왜 죽을 수밖에 없는가’ 라는 질문으로 연결된다는 점이다. 이러한 질문은 삶의 존재 이유에 대한 질문이며, 질서의 필연성을 보장하는 내적 체계가 무너지고 있음을 보여주는 장면<sup>15)</sup>이라고 할 수 있다. 또한 이 시는 전쟁의 참상을 사실적인 기법으로 묘사하고 있다. 이 시는 전봉건의 <그리고 오른쪽 눈을 감았다>와 박인환의 <검은 신이여>를 떠올리게 하는데<sup>16)</sup>, 이 시에 산포되어 있는 고통에 찬 신음소리와 전쟁의 공포 속에서 죽어가는 인간의 유한한 실존을 적나라하게 드러내고 있기 때문이다.

전쟁 속에 내던져진 인간은 극한의 공포를 느낀다. 이 ‘공포’는 과거에 느꼈던 어떤 ‘섬뜩한 것’이 되돌아오면서 일상의 세계가 일시에 무너지며 모든 것이 무의미해지는<sup>17)</sup> 감정을 말한다. 따라서 이 시에서 화자의 공포는 타자의 죽음으로부터 시작된다고 볼 수 있다. 타자의 죽음은 일순간에 화자 자신의 죽음으로 내면화되기 때문이다. 산자와 죽은 자가 공존하는 화자의 현실은 웃음과 울음의 대립적인 이미지로 구체화되며,

15) 김예리, 『고석규의 에세이적 글쓰기와 ‘바깥’의 사유』, 『한국근대문학연구』 26집, 한국근대문학연구회, 2012, 363-364쪽.

16) 조영복, 앞의 논문, 270쪽.

17) 구연상, 『공포와 두려움 그리고 불안』, 청계, 2002, 343쪽.

삶/죽음, 전쟁/인간에 등의 대립적 방법론을 통해서 전쟁 속에서 벌어지는 인간의 폭력성을 의미화 한다.

피 비린 문인(文人)들의 줄 매는 소리//……)//빈센트 반 고흐의 자살같이/혹은 그 무한추도(無限追悼)의 응혈과 같이(……)싸늘한 돌 속에도/꽃들은 빠알강게 피었겠습니까

- <도가니> 부분

이 시에서 ‘도가니’는 전쟁의 공포와 폭력으로 인하여 인간의 내적 체계가 무너지는 처참한 상황을 은유한다. 임시수도인 부산으로 피난 내려온 문인들의 자살 사건을 모티프로 한 이 시에서 화자는 아직도 폭력과 살육이 자행되는 전쟁의 현실 속에서 빠져나오지 못한 채 전우와 문우들의 아비규환의 비명소리를 듣는다. “고흐”처럼 자살한 문우들의 죽음 또한 화자로 하여금 전쟁에서 목격한 전우의 죽음과 동일하다는 인식을 갖게 한다. 전쟁은 폭력과 살육을 통해 한 집단의 승리를 도모할 수밖에 없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은 인간의 폭력성을 고스란히 드러낼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어버린다. 이러한 실존의 상황에서 인간은 깊은 절망감을 느낄 수밖에 없다. 키에르케고르는 인간이 느끼는 절망을 두 가지로 구분하는데, 하나는 절망하여 자신으로부터 벗어나려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절망 속에서도 자기 자신으로 있기를 희망하는 것<sup>18)</sup>이다. 고석규의 경우는 전자에 해당된다고 할 수 있다.

고석규가 전쟁에서 직면한 인간의 폭력성은 근대의 주체를 불안과 공포, 부조리에 허덕이게 하였고, 그러한 인식은 타자의 죽음을 통해 그를 더욱 무기력하게 만들었다. 이 무력감은 실존의 불가능성으로서의 상징적인 죽음을 의미하면서 죽음의 끝인 영원한 종말을 의미하기도 한다. 죽음은 항상 타자의 죽음으로 다가온다. 전쟁 속에서 만나는 죽음은 불현듯 덮쳐오는 낯설은 죽음으로 다가온다. 이 낯설은 죽음이 주체의 내

18) S. 키에르케고르, 박병덕 옮김, 『죽음에 이르는 병』, 비전북, 2012, 41쪽.

면 속에 섬뜩한 자극으로 반복될 때마다 주체는 무력감을 느끼게 되고, 이 무력감은 인간의 고유한 죽음을 삶의 영원한 종말로 인식하도록 만든다.

활짝 핀 꽃밭에/얼굴을 비비다 밤이 오면//불비암 여자들/실명(失明)의  
한숨 지껄이고//어둔 연쇄(連鎖) 육된 시간의 이별이 한다//(...)독 없  
는 가슴에/다른 태양은 핀다.

- <일식(日蝕)> 부분

이 시는 “꽃밭”이라는 평화의 이미지와 “실명(失明)”이라는 전쟁의 이미지의 대립적 구조로 형상화된 작품이다. 또한 3, 4연에서는 전쟁과 평화, 이성과 사랑의 대립적 이미지를 충돌·병치시키면서 전쟁의 폭력성을 역설적으로 구체화한다. 또한 “이별”의 의미는 고향을 잃은 상실감과 어머니와 연인을 잃은 상실감을 비유한다. 그것은 4, 5연의 “사랑”과 “다른 태양”이라는 시어 속에서 심층적으로 나타난다. 여기서 “사랑”은 연인을, “다른 태양”은 회귀의식을 은유한다고 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 시에서의 “일식(日蝕)”은 전쟁의 현실이 인간과 자연 사이에 끼어들어 둘 사이의 평화 상태를 폭력적으로 깨뜨리는 상황을 상징한다. 따라서 화자는 “일식”이라는 캄캄한 현실 앞에 내던져진 채 ‘나는 왜 살아 있는가’라는 실존의 물음을 던지고 있으며, 죽어가는 타자를 바라보면서 휴머니즘의 상실감을 내면화한다. 이러한 휴머니즘 상실의식은 전쟁 속에 내던져진 인간은 전쟁에 사용되는 하나의 도구로서 존재할 뿐이며, 군번으로만 호명되던 화자 자신도 결국 그 사용가치가 없어지면 언제든지 버려질 수 있다는 인식에서 비롯된 것이다.

저 무풍의 지대(...)죽음을 안고 나와 같이 출현하는 상채기를 어떻게  
치유할 것인지, 배면의 신을 위하여 배면의 신을 사정없이 난도질하며  
기피하며 강박하며 물어뜯는 그들의 황색 피부를 어찌 나는 거역한다

말인가.<sup>19)</sup>

1950년대 대부분의 시들은 전쟁의 폭력성에 대한 비판의식으로부터 발현된 휴머니즘 사상을 드러낸다. 위의 글에서 “무풍의 지대”는 전쟁의 폐허 상태를 상징하며, “나의 인인(隣人)들”은 동족이자 적군, 그리고 고향의 친지들을 은유한다. 죽음의 지대인 “무풍의 지대”는 죽은 전우의 영혼의 “상채기”를 다시금 떠올리게 하는 곳인 동시에 “배면의 신”, 즉 신(神)이 존재하지 않는 공간이며 자유와 사랑이 사라진 공간이다. 특히 박인환의 <검은 신이여>는 니체의 “신은 죽었다”라는 명제를 그대로 복제하면서 허무주의로 함몰하게 하는 요인이 되지만, 고석규에게 신의 죽음은 인간 존재에 대한 실존의 물음을 던지며, 이 죽음의 여백 속에서 죽은 영혼들의 상처를 어떻게 달래줄 것이며, 자신에게도 불시에 닥쳐올지 모를 죽음을 어떻게 거역하지 않을 수 있는가 라는 실존의 물음을 던지고 있다.

### 3. 죽음의 유한성에 대한 불안과 허무, 자기소외의식

불안은 공포와 달리 그 대상이 불확실하고 무어라 규정지을 수 없는 감정이다. 전쟁이라는 상황 속에서 인간은 삶과 죽음이라는 이중적 상태로 나누어진다. 전쟁에서 겨우 살아남은 자는 죽은 자를 애도할 여유조차 갖지 못한 채 전쟁이라는 상황 속으로 또 다시 내던져지기 때문이다. 이러한 현실 속에서 고석규는 삶과 죽음의 괴리감을 절감하며 운명처럼 다가오는 죽음이라는 한계상황을 절감한다. 따라서 고석규 시에서 죽음의 간접체험은 죽음이라는 한계상황에 처한 화자로 하여금 웃음과 울음이 혼용된 양가적 이미지를 표출하게 한다. 이것은 불안과 죽음을 회피

19) 고석규, 『지평선의 전달』, 『고석규 문학전집 2』, 62쪽.

하기 위한 하나의 대응 전략으로서 기능한다.

①마지막으로 사라진 얼굴은//산한 눈 속에 흔들리는/웃음만 버리고 떠  
나갔다

- <모습> 부분

②푸른 입 자국 남은 여자들/(……)/갈갈이 찢어진 웃음을 고르면/  
(……)/호늘지는 검푸른 바닷물이 새어/(……)/습성을 배우는 가난의 웃  
음들

- <파화(破話)> 부분  
(※밑줄 필자 강조)

①의 시는 비참한 죽음으로 사라져간 전우를 회상하는 작품으로서, “불 꺼진 새벽”에 깨어난 화자가 전우의 혼령을 환영(幻影)으로 만나는 이미지를 구체화한다. 전우의 혼령은 “별뿔”으로 환기되면서, 화자로 하여금 자신은 죽지 않고 살아 있다는 죄의식을 불러일으킨다. 이러한 감정의 혼란으로 인해서 화자는 현실의 부조리를 느낀다. 카이저는 ‘광기’를 “삶이 인간에게 강요하는 그로테스크의 가장 기본적인 경험”<sup>20)</sup>이라고 말한다. 이 시에서 ‘광기’는 “흔들리는 웃음”으로 나타나며, 이 웃음은 공포를 회피하고자 하는 ‘이성’과, 공포를 극복하지 못하는 ‘감성’ 사이에서 표출되는 부조리하고 불안한 심리상태를 반영한다. 이러한 웃음은 화자를 짐승으로 탈바꿈시키고, 이로 인하여 그는 이성을 잃은 ‘광기’의 주체로 변환된다. 박슬기는 이러한 웃음의 시학을 음울함이 내면화된 세계로 인식한다. 그에 따르면, 「강」이라는 시에서 아이들의 주검이 이리저리 떠다니는 모습이나, 여인들이 ‘야오’라고 환호하는 모습은 하나의 즐거운 소극처럼 처리되고 있으며 이러한 기법은 그로테스크한 효과를 더

20) Kayser, Wolfgang, *The Grottesque in Art and Literature*, McGraw-Hill Book Company, 1966, pp.184. 여기서는 강윤희, 「한국전후소설의 그로테스크 연구-장용학, 손창섭, 최상규의 소설을 중심으로」, 서강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01, 1쪽 재인용.

욱 명징하게 드러낸다고 말한다. 즉 비극적인 내용을 하나도 비극적이지 않게 처리하는 웃음의 효과는 공포성을 웃음으로 극복하고자 하는<sup>21)</sup> 화자의 내면의식을 드러내는 것이라고 말한다. 이처럼 ‘광적인 웃음’의 형상화는 전쟁에서 간접 체험한 죽음에 대한 공포와 그것을 극복하고자 하는 내면의식을 은유하기 위한 시적 장치라고 할 수 있다. 바흐친은 웃음이 세계의 공포성을 극복하게 하고, 민중적인 웃음 속에는 공식적인 지배이데올로기를 전복할 수 있는 저항력이 있다고 말하면서 웃음의 중요성을 강조한 반면, 클락은 전쟁을 경험한 인간에게는 바흐친적인 웃음이 드러나지 않으며 그것은 절망적인 웃음<sup>22)</sup>에 불과하다고 말한다.

②의 시는 클락의 주장처럼 절망에 가까운 죄의식에 빠진 화자의 심리 상태를 드러내고 있는 작품이다. 화자는 공포에 쫓기면서 밤의 “골목길”을 달린다. 가슴에 불이 붙은 채 고통스런 악몽 속을 질주하면서도 화자는 “검푸른 바닷물”에 몸을 던져 “고깃밥”이 되기를 원한다. 그러나 악몽은 그의 “목숨”을 질질 끌고 다닐 뿐이며, 다만 이러한 현실 속에서 그가 취할 수 있는 행동은 부조리를 순순히 수용하는 것뿐이다. 따라서 역설적이게도 화자는 모든 것을 포기한 듯한 “가난한 웃음”을 짓는다. 고석규는 “광렬한 동정심과 아름다운 생명의 고선(孤線)에 침범하는 장애물을 거절하는 방어심 또한 나의 크나큰 의지<sup>23)</sup>”라고 말한 바 있다. 즉 전쟁이라는 폭력으로부터 발생한 죽음의 공포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자기 방어적 인식밖에 현실에 대항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는 것이다. 이러한 자기 방어적 인식에는 삶과 죽음이 공존하는 죽음의 공포를 ‘자기 방어적 웃음’이라는 역설적인 상황으로 극복하고자 하는 의식이 깔려 있다.

21) 박슬기, 앞의 논문, 51쪽.

22) J. R. Clark, *The Modern Satiric Grotesque and its Tradition*, Lexington: The Univ. Press of Kentucky, 1991, pp.7-26. 참조. 박슬기, 앞의 논문, 13쪽, 재인용.

23) 고석규, 남송우 엮음, 『청동일기 II』, 『고석규 문학전집 3』, 308쪽.

①내가 걸음을 놓아보는 날/내가 타는 노을에 다시 서는 날//거친 세월  
에 목놓아 울어/눈먼 희망처럼 불러볼거나. - <고향산> 부분

②우리네 향수는/(……)예진 날 밝은 빛이 서로 반가워/부여안고 울어볼  
- <우리네 향수> 부분  
(※밑줄 필자 강조)

①의 시는 향수(鄉愁)에 시달리는 화자가 고향의 성천강과 황초령을 그리워하는 정황을 구체화한 작품이다. 화자는 민족분단의 현실 앞에서 고향을 잃은 상실감과 혼자라는 고독감을 느끼며, 고향의 어머니와 연인인 영(羚)의 존재를 떠올린다. 그리고 그들을 만날 수 없다는 절망감에 “목놓아 울”게 된다. 이 울음은 암담한 분단현실을 벗어나기 위한 절절한 울림으로서 그의 내면으로부터 토해져 나오는 ‘고통의 울음’인 것이다. 이러한 내면상태는 혼자만 살기 위해 월남(越南)했다는 죄의식으로부터 비롯되는 자학과 그 자학에서 빠져나오려는 심리적 충돌로서 나타나는 것이며, 이는 그를 더욱 고통스럽게 만든다.

②의 시는 ‘향수(鄉愁)’에 고통스러워하는 화자의 고독과 소외의식이 극에 달한 상태를 구체화한 작품이다. 이 시에서의 울음은 자기를 방기하듯이 터뜨리는 울음, 즉 ‘카타르시스의 울음’으로 변환되어 나타난다. 그러나 이러한 울음은 화자의 소외감이나 고독감을 해소해 주지 않지만 한순간이나마 화자의 고통을 잊게 해주는 역할을 한다. 중요한 점은 이러한 ‘울음’이 촉각적 묘사를 통해서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이다. 이것은 다시는 만날 수 없는 어머니와 연인을 환영으로나마 만나고자 하는 화자의 간절한 그리움이 그들을 끌어안는 환상적 정황으로 나타난 것이다. 이처럼 화자는 전쟁으로 인한 죽음에 대한 ‘불안’과 ‘공포’에 압도당하게 되고 그로 인해 그는 세계의 모든 것이 순식간에 무의미해지며 일상성이 일순간에 해체됨을 감지한다.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고석규 시에 나타나는 웃음 이미지는 ‘광적

인 웃음'과 '자기 방어적 웃음'으로, 울음의 이미지는 '고통의 울음'과 '카타르시스의 울음'으로 나타난다. 이러한 웃음과 울음의 양가적 이미지는 전쟁에서의 죽음의 공포를 극복하고자 하는 시적 방법론의 하나로서 기능한다. 웃음과 울음의 양가적 불안의식은 고석규로 하여금 미래에 대한 가능성조차 기대하지 못하게 만들고, 이러한 미래에 대한 불가능성은 그로 하여금 허무감을 느끼게 한다.

인간은 일상의 순간순간마다 '불안'을 느끼면서 자신의 존재에 대해 물음을 던진다. 이 물음은 자신의 존재 이해에 대한 물음이며, '왜 사느냐'에 대한 물음이다. 그리고 그는 '죽음'이라는 인간의 유한성에 대해 알고자 한다. 죽음으로 내던져진 자신의 '실존'에 관심을 집중시킨다. 죽음은 인간에게 존재의 유한성의 극한을 의미하며, 거부할 수도 피할 수도 없는 필연적이고 유한적인 존재의 가능성이며, 인간이 시간성에 의해 규정되는 존재임을 함의한다. 따라서 인간은 시간성을 바탕으로 하여 죽음이라는 한계성을 향해 나아가고 있는 존재이다.

밤에 밀실로 찾아가/내가 웃지도 울지도 못한 기적은/나의 사랑과 죽음  
에/똑같이 서명한 기억//(.....)나는 아무래도 현명한 배경에서/죽기를  
바라는 일뿐. -<허무(虛無)>부분

이 시는 '사랑과 죽음'의 대립적 이미지의 연쇄와 충돌로서 구조화되어 있으며, 이러한 이미지들은 화자에게 허무감을 불러일으킨다. 이러한 허무감은 화자로 하여금 "나는 무엇을 생각하였노"라는 자신의 존재에 대한 물음과 대면하게 하면서 동시에 "밀실"이라는 유폐의식으로 차단하게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화자는 고향으로 돌아갈 수 있으리라는 한 가닥 희망의 끈을 놓지 않는다. 그러나 현실은 공포와 주검으로 가득 찬 폐허의 세계이며, 삶도 사랑도 유한성이라는 시간의 종착지를 향해 흘러갈 뿐이다. 6·25 전쟁 속에서 타자는 적군이면서 동족이고, 동족이면서 나의 형제이기도 하였기 때문에 고석규는 전쟁을 하면서도 타자라는 존

재에 대해 혼란을 겪을 수밖에 없었고 인간 ‘실존’에 대한 의문을 품게 되었다. 이러한 의문은 그로 하여금 타자에 대한 불신감을 갖게 하였고, 인간성에 대한 부정과 회의를 바탕으로 한 ‘허무’의식에 빠지게 하였다. 이러한 ‘허무’의 세계에서 인간이 취할 수 있는 방법은 사르트르가 강력하게 주장한 ‘앙가주망’<sup>24)</sup>으로 향하거나 도피하는 것, 그리고 죽음에 이르는 길밖에 없다. 그러나 그는 도피의 길을 선택한다. 그 길은 바로 자기소외의 길인 것이다.

나의 복면(覆面)에는/피물은 구슬이 달렸다 하오/(……)나를 이끌던 팔  
이 없소/먼 길에 휘젓는 그 팔을/나는 보지 못하고/(……)이제 누가/내  
복면을 끌러주는 것이오/ - <길> 부분

이 시에서의 “복면”은 원시 제의 때 쓰던 동물가면이나 악마의 가면이 아니라 “나에게 사나운 탈을 가져다 준 피 칠한 공인”(『대화』)이 강제로 씌워준 것<sup>25)</sup>으로서, 화자는 이 복면으로 인해서 세계로부터 소외된다. 따라서 화자는 자신의 팔을 볼 수 없게 되고, 자신의 육체로부터 소외되는 상태로까지 나아간다. 이러한 맥락에서 살펴볼 때 화자는 스스로 복면을 쓴 것으로 파악되며, 복면을 씌우으로써 타자의 시야에 자신을 드러내지 않게 되고, 스스로를 은폐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결국 “복면”은 암담한 현실을 부정하기 위한 전략으로서 차용되고 있다. 따라서 이 시의 제목이 “길”인 이유가 바로 이 지점에서 밝혀진다. “길”은 타자와의 소통과 갈등이 교차하는 지점이며, 타자를 통해 주체를 발견하는 지점이

24) 앙가주망은 ‘참여’라는 뜻이다. 이 의미는 단순한 참여를 일컫는 것이 아니라 사회에 대한 ‘적극적인 참여’를 의미한다. 상황이 정의하는 가능한 것들 중에서 하나를 선택해야 한다는 필연성으로부터 비롯되는 것으로서, 인간이 자기 고유의 상황에 대면해서 자신의 전적인 책임을 의식하고 그 상황을 변경하거나 유지 또는 고발 하기 위하여 행동할 것을 결심하는 태도를 말한다. J. P. 사르트르, 박정태 역, 『실존주의는 휴머니즘이다』, 이학사, 2008, 128쪽

25) 박슬기, 앞의 논문, 26쪽

기도 하고, 주체가 타자에게 발견되는 지점이기도 하기 때문이다. 화자가 복면을 쓴 채 길을 걷어가는 것은 전쟁 속에서 폭력과 살육을 자행했던 ‘짐승’이 되어버린 자신의 ‘얼굴’을 타자에게 들키지 않기 위함이고, 스스로를 타자의 세계 속에서 소외시키는 것이며 동시에 그것은 상징적인 자신의 죽음을 의미하는 것이다. 그러나 그는 그러한 소외의식 속에서도 미래의 새로운 “얼굴을 기다리는” 자기공정의 이중적인 부조리함을 드러낸다. 이러한 소외의식은 박인환의 시 『태평양에서』도 드러나는데 “나는 살아 있는 자라고 외칠 수 없었다.”라고 진술하는 부분은 전쟁으로 인한 인간의 소외의식의 절정을 보여주고 있다고 판단된다.

하이데거가 현존재를 ‘죽음에 이르는 존재’라고 규정했듯이, 고석규 또한 죽음이라는 인간의 유한성을 전쟁에서 직접 체험하면서 도저한 허무감에 괴로워한다. ‘타자의 죽음’이 바로 ‘나의 죽음’이라는 인식은 고석규로 하여금 죽음의 유한성에 직면하게 하고, 동시에 ‘허무’와 ‘자기소외’의식을 각인시켜주었던 것이다.

#### 4. 허무의식과 자기소외로부터 내면화된 죽음의 세계

함경남도 함흥에서 태어난 고석규는 전쟁이 일어나자, 군의관으로 전쟁에 참전한 아버지를 찾아 단신으로 월남한다. 그는 전장에서 우연히 만난 아버지와 함께 부산에 정착해 살면서도 줄곧 극심한 상실감을 겪는다. 이러한 상실감은 고석규 자신의 육체에 대한 부정의식과 허무와 소외의식으로 변환되어 죽음의 세계로 내면화된다.

①털 없는 내 강아지가 설다//(.....)나의 마지막 영구(靈柩)에서도 불길  
이 탄다 - <절교(絶橋)> 부분

②칼금에 피가 흐르는/(.....)부서진/하얀 목숨의 허물이/점점 바람과 같

이/빛을 버리오 - <과경(破鏡)> 부분

③ 플러나간 팔이여!/(……)내 손에는 검은 피가 자꾸 맺혀 흐르는 것이  
니 - <방(房)> 부분

눈서리 흘리는 교두보에//누나의 피 저린/머리채가 보이지 않았다  
- <역송(譯送)> 부분

내 몸의 가없는 부분들이/발간 분(粉)처럼 떨어져갈 때  
- <침윤(浸潤)> 부분

④ 불비암 여자들/실명(失明)의 한숨 지껄이고 - <일식(日蝕)> 부분  
눈도 코도 입도 없는/민기지 않는 사람들 - <꿈> 부분

피어도 산란한 슬픔에 느끼며/귀 없는 이야기에 엮어진 화판  
- <코스모스 서정> 부분  
(※ 밑줄 필자 강조)

①의 시에서 나타나는 세계와의 절연 의식은 세계로부터 스스로를 소외시킨 화자의 내면의식이 반영된 결과이다. 주목할 점은 화자가 자신의 육체를 어떻게 인식하고 있느냐 하는 점이다. 그는 자신의 육체를 “죽은 피를 마시다” 겁게 타버려 죽은 “강아지”로 인식한다. 이러한 인식은 화자의 상실의식이 그의 정체성에 얼마나 심각한 상처를 주었는지를 증거한다. 이러한 육체에 대한 ‘과격성’의 인식 속에는, 불길히 활활 타오르는 “영구(靈樞)”의 세계에 대한 동경, 즉 죽음의 세계에 대한 동경이 내재해 있다고 볼 수 있다.

②의 시에서 ‘거울’은 자기에 혹은 주체성을 상징하며, ‘깨뜨리다’는 주체성의 상실 혹은 자기에의 상실을 언표 한다. 각 연의 술부 “떨어져 있소”, “숨결이 꺼지오”, “빛을 버리오.” 등은 파편화된 화자의 육체 상태를 구체화한다. 이러한 ‘섬뜩함’의 이미지는 화자의 육체와 정신의 죽음을 은유하며, 무시무시하거나 소름끼치는 반응을 고양시키는 작용<sup>26)</sup>을

26) P. 톰슨, 김영무 역, 『그로테스크』, 서울대출판부, 1986, 52쪽.

한다. 이러한 육체의 파편화 양상은 전쟁에서의 타자의 주검에 대한 ‘섬뜩함’ 기억과 그로 인한 화자의 정신의 불구화 상태를 함축한다.

③의 시들에서의 육체의 불구화 양상은 인간의 신체 부위가 떨어져나가거나 꺾어져 나가는 양상으로 표출된다. 이러한 ‘끔찍스러움’의 양상은 타자의 죽음으로 인한 공포가 내면에 숨어 있다가 어떠한 공포가 다가올 때 불현듯 일어나는 공포의 일종이다. 이러한 ‘끔찍스러움’은 고석규의 시에서 다시 환상으로 역전되어 나타나는데, 문제적인 것은 이때 화자 자신이 실제로 ‘불구’의 주체가 되어버린다는 점이다.

④의 시들의 육체의 “섬뜩함”과 “끔찍스러움”의 양상은 타자의 죽음을 내면화시킨 화자가, 어느 한 순간 공포가 덮쳐올 때 이것들이 일순간에 화자의 내면 밖으로 튕겨져 나와 세계의 부조리를 토해내는 양상으로 드러난다. 이러한 부조리는 전쟁의 상처뿐만 아니라 인간의 선형적인 부조리, 즉 생로병사라는 인간의 유한적 삶에 대한 부조리를 의미한다. 따라서 이 시들의 화자는 불구의 존재로서, 파편화되고 불구화된 육체의 서사를 써나가고 있는 것이다. 그 서사는 죽이고 죽일 수밖에 없었던 폭력과 살육에 대한 죄의식과 자기형별로 찢어진 ‘죽음’의 기록이자, 텅 빈 ‘부조리’의 기록이다.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그의 육체에 대한 인식은 충격적이고 폭력적인 전쟁에서의 타자의 죽음으로 인해 발생한 것이며, 그의 육체의 상상력은 ‘과격성’, ‘섬뜩함’, ‘끔찍스러움’, ‘부조리’ 등 네 가지 층위의 이미지로 변주되는 육체의 불구화를 통한 죽음의 자아화를 지향한다. 이 지향점은 전쟁에서 겪은 비참한 체험을 통해 획득된 것이기 때문에 더욱 비극적인 것으로 다가온다. 고석규 시에 나타나는 사물화 된 ‘육체의 불구성’ 또한 전쟁에 대한 부정적 사유가 기호화된 것으로 볼 수 있다.

①나는 숨죽인/한 마리 강아지로/파아란 울음을 울었더니/(.....)눈도 코도 입도 없는/민기지 않는 사람들이다. - <꿈> 부분

②짐승의 피가 어지러운 나의 얼굴에//((……))검은 아픔에 우는 소리/면  
소리가//내 귀에는 들리지 않는다. - <하늘> 부분  
(※밑줄 필자 강조)

①의 시에서 “강아지”가 의미하는 것은 화자 자신의 인간성에 대한 부정이다. 강아지는 먹이를 위한 생존의 싸움 외엔 어떠한 폭력적 행동도 시도하지 않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 시의 핵심 이미지는 “한 마리 강아지”로 사물화 된 화자의 내면세계이다. 이 세계는 아무것도 들리지 않고 아무것도 듣고자 하지 않는 사유의 부정, 이성의 부정을 지향하는 세계이며, 화자 자신이 짐승이 되어 더 이상 인간으로 존재하고 싶어 하지 않는 ‘도피’의 세계이다.

②의 시에서 화자의 감각은 자신의 내면으로부터 들려오는 절망과 공포의 소리에 집중되고 있다. “하늘”을 “짐승의 피”가 흐르는 자연으로 치환하고 있는 화자의 인식은 자신의 중요한 신체 부위를 불구로 형상화시키고 있는데, 이것은 순수 자연인 “하늘”과의 극적 대비로부터 발생하는 ‘육체의 비극성’과 그 비극성을 탈피하고자 하는 ‘육체의 부정성’을 강조하기 위한 하나의 장치로 파악된다. 화자를 “짐승”으로 만든 것은 전쟁이며, 전쟁의 폭력적 상황을 “피”, “꽃잎”과 대립 병치시킴으로써, 그는 스스로의 정신과 육체를 더욱 비참한 상태로 몰고 간다. 이는 카프카가 자신의 삶의 상처를 육체의 기괴한 변형으로 작품 속에 표출하는 것<sup>27)</sup>과 같은 방법이라고 할 수 있다. 이처럼 고석규에게 ‘허무’와 ‘자기 소외’의식은 타자의 죽음과 인간의 폭력성, 그리고 휴머니즘 상실로부터 비롯된 것임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의식은 자기 자신으로부터의 도피를 의미하며, 이는 고석규의 내면에 깊은 상실감으로 내면화되고, 이 상실감은 죽음의식으로까지 전이되어 나타난다.

27) 한혜선, 『한국현대 소설의 인물연구-신체적 결손 징표를 중심으로』, 이화여자대학교 박사학위논문, 1991, 18쪽.

<날개>의 작자 이상은 스물셋 되는 해 초삼월에 처음으로 각혈을 하였다.(……)나(沿革)는 스물한 살 되는 해 팔월에 처음으로 각혈을 하였다.<sup>28)</sup>

오전과 오후 그리고 저녁에 ‘이소니코진산’을 복용하고 있다./오늘은 쓰지도 읽지도 못하여 나는 아무런 지능의 발전을 보지 못하고 있다. 그러나 병에 대한 거의 만능적인 해석이 나를 자꾸 자리에서 일어나게 하였다.<sup>29)</sup>

고석규의 ‘죽음의 자아화’ 양상은 스물한 살 때 발병한 결핵으로부터 시작된 것이기도 하다. 결핵이라는 질병은 근대의 질병으로서, 그것은 내면의 정념과 격렬함의 메타포이며, 결핵환자는 병적인 열정을 통해서 육체의 소멸에 도달하게<sup>30)</sup> 될 존재이기 때문이다. 또한 결핵은 예고된 죽음으로 인한 극한의 실존적 불안과 언제 죽을지 모를 죽음의 단말마와 결합<sup>31)</sup>되어 있기 때문이다. 위의 글 속에서도 고석규는 “꿈” 속에서 조차 삶과 죽음의 단말마를 동시에 겪으며 산다. 왜냐하면 당시의 의료 상황은 결핵의 치료약이 존재하지 않았으므로, 결핵환자들은 그 질병의 수인(囚人)이 될 수밖에 없었기 때문이다. 이러한 삶은 바로 한없이 추락할 수밖에 없는 “직각(直覺)”의 삶이자, “악몽”의 삶이며, “종막”의 삶인 것이다. 이처럼 고석규의 죽음의 세계는 육체의 불구성의 시적 형상화를 통한 상실감의 내면화와 자아의 사물화를 통한 죽음의 자아화로 구체화되고 있다. 죽음의 자아화는 두 가지로 나타나는데, 하나는 전쟁의 처참함과 타자의 죽음으로부터 비롯된 죽음의 간접체험이 자아화 된 것이고, 다른 하나는 고석규가 결핵을 앓으면서 현실적 참여나 자유가 불가능한 상태, 즉 미래에의 희망을 상실한 상징적인 죽음으로서의 자아

28) 고석규, 남송우 엮음, 『청동일기 II』, 앞의 책, 238쪽.

29) 고석규, 남송우 엮음, 『청동일기 I』, 앞의 책, 125쪽.

30) S. 손택, 이재원 옮김, 『은유로서의 질병』, 이후, 2002, 36쪽.

31) G. 슈리, 장혜경 옮김, 『괴의 문화사』, 이마고, 2002, 50쪽.

화이다.

릴케는 ‘죽음’을 ‘낯설은 죽음’과 ‘고유한 죽음’으로 구분한다. 전자는 우연적이고 갑작스런 돌연사를, 후자는 자연적인 죽음<sup>32)</sup>을 의미한다. 삶과 죽음이 교차하는 전쟁의 현실 속에서 고석규는 인간의 극한의 한계 상황인 죽음에 대해 물음을 제기한다. 이러한 물음은 죽음을 수동적으로 받아들일 수 없다는 ‘반항의식’으로 표출된다. 고석규의 죽음의식은 주로 그로테스크<sup>33)</sup>한 이미지로 형상화되고 있다. 그것은 자신의 육체를 ‘불구화’하고 ‘사물화’하여 자신의 ‘죽음’을 상징적으로 드러낸다. 그러나 고석규는 부정적 인식으로 내면화된 죽음의식 속에서도 “나는 왜 살아 있는가”라는 자신의 내면에서 들려오는 소리를 듣는다. 그것은 하이데거가 말한 양심의 소리로서, 고석규는 그 소리의 진원지를 전쟁 속의 여백 속에서 찾고자 한다. 죽어간 자들에 의해 자신의 의식이 점유당할 때 산자는 어쩔 수 없이 그 죽음을 넘어서기 위한 질문을 시작하게<sup>34)</sup> 되기 때문이다. 이 질문은 그로 하여금 모든 것이 부재하는 전쟁의 현실 속에서도 생명에의 가능성이 존재할 수 있는 여백이 있다는 역설적인 성찰에 이르게 한다. 이러한 성찰은 그로 하여금 죽음에 대한 반항의식으로 나아가게 한다.

32) O. F. 블로우, 최동희 옮김, 『실존철학 입문』, 자작아카데미, 2000, 135쪽.

33) 그로테스크는 ‘그로테(grotte: 동굴)’라는 이탈리아 낱말로써 ‘발굴’이라는 말과도 관련되며, 우스꽝스럽고 괴상한 것을 지나칠 정도로 강조하면서 동시에 우스운 것과 괴기한 것이 불가해하게 얽히고 뒤섞여 불쾌하고 뒤숭숭한 감정의 갈등을 빚게 하는 시적 기법이다. 볼프강 카이저는 그로테스크를 낯설고 소외된 세계의 표현이라고 말하며, 그것은 터무니없는 것과 별이는 게임이며, 반은 존재의 깊은 부조리와, 반은 유모의 의미로 장난을 하는 것이며, 세상의 악마적인 요소를 통제해서 쫓아내려는 의도가 강한 것으로 보았다. P. 톰슨, 앞의 책, 17-19쪽, 24쪽.

34) 남승우, 『짧은 삶과 미완의 시학』, 221쪽.

## 5. ‘청동시대’의 반항의식과 ‘여백’의 사상: 결론을 대신하여

고석규 사후 발간된 유고시집은 『청동의 관』이다. 여기서 “청동”은 로댕의 「청동시대」에서 차용한 것이다. 특히 김윤식은 6·25와 릴케·로댕·윤동주·고석규의 시대정신을 ‘청동시대’로 명명<sup>35)</sup>한다. 고석규는 릴케가 언급한 「청동시대」의 ‘최초의 사나이’를 전쟁으로 파괴당한 폐허의 한국인, 즉 자신의 자화상으로서 규정한다. 『로댕』<sup>36)</sup>에서, ‘최초의 사나이’는 최초의 근대인으로서, 이성중심주의의 전 근대적인 사유방식에서 깨어남과 동시에 다시금 근대라는 힘겨운 짐을 짊어져야 하는 존재로 상징된다. 고석규는 이러한 릴케의 사상을 받아 들여 근대인으로서의 새로운 자각과 반항의식에 눈뜨기 시작한다. 이러한 ‘눈뜸’은 공포와 불안에 함몰되어버린 채 무기력하게 살아가는 자신의 모습을 돌아보게 하고 그로 하여금 환멸을 느끼게 만든다. 그리고 그는 보다 근본적이고 적극적인 삶에의 지향을 모색하기 시작한다.

내가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가를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 선상에  
있어야 할 지금에 비긴다면 그러한 지금은 이미 지금을 넘는 지금에만  
분명할 것이다.<sup>37)</sup>

35) 김윤식, 앞의 글, 237쪽.

36) “여기 태곳적 인간의 나체산이 있다. 이를 ‘청동시대’(1877)라 부른다. 이 사나이는 태곳적의 암흑 속에서 잠이 깨었다. 그리하여 성장해가면서 몇천 년을 지나온 우리를 훨씬 넘어 장차 오리라 생각되는 인간세계로 걸어가고 있다. 머뭇거리며 그는 들어올린 팔에 몸을 뺏쳐가고 있다. 그런데 이 팔은 아직 무거운지라 한쪽 팔의 손은 다시금 머리 위에서 쉬고 있다. 정신을 집중시키고 있다. 뇌수 꼭대기의 더없이 높은 뇌수가 고독해 보이는 데서 일할 준비를 하고 있다. 오른팔은 헛걸음을 내딛고자 하는 참이다.” R. M. 릴케, 천광진 역, 『로댕』, 여원교양신서, 1960, 39쪽. 김윤식, 위의 글, 332쪽 재인용.

37) 고석규, 남송우 엮음, 「지평선의 전달」, 앞의 책, 51쪽.

죽음은 너무 빨리 혹은 너무 늦게야 우리에게 찾아온다. 가장 공포스러운 점은 우리가 죽을 때 만들어지는 부재의 내용과 공허의 깊이는 영원한 외곽 지대를 형성하며<sup>38)</sup> 우리를 죽게 만드는 것은 그러한 공간의 ‘다가옴’이라는 점이다. 따라서 고석규는 “내가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가”라는 물음을 삶의 정점에 놓고 있으며, “지금 을 넘는 지금”인 현재의 순간이 가장 중요하며, 죽음의 세계 속에 내던져진 현재의 시간과 부딪히며 반항하는 행위가 미래의 존재 가능성을 되찾는 길이라고 자각한다. 이는 ‘나귀’와 같은 수동적인 삶에서 벗어나 보다 능동적인 삶으로 나아가고자 하는 결연한 의지를 드러낸다. 그럼으로써 전쟁에 대한 불안, 죽음에 대한 공포를 떨쳐버릴 수 있기 때문이다. 고석규의 실존의식은 부조리한 현실에 순응하는 삶의 자세를 보이지 않을 뿐 아니라 순탄한 삶의 상황조차 인위적으로 부정적 삶의 상황으로 바꾸어 거기에 대항하는 자세<sup>39)</sup>를 보였다는 그의 문우들의 회고는 고석규의 정열적이고 반항적인 삶의 자세를 증거하며, 고석규의 영원한 자유의지를 확인시켜 준다.

내 몸의 가엾은 부분들이/발간 분(粉)처럼 떨어져갈 때에는/(……)새가  
날아가고 밤은 더욱 맑아오는데/(……)내 가슴 위에는/파란 상화(傷花)  
가 꿈처럼 피어 있다. - <침윤(浸潤)> 부분

고석규는 이 시를 기점으로 해서 자신을 세계에 내던져진 존재로 인식하면서도 그것을 능동적인 ‘던짐(기투)’의 상황으로 전환시킨다. 그것은 ‘무(無)’의 수용이며 ‘여백’의 수용이다. 이때 ‘여백’이란 실재에 대한 대립 개념인 동시에 정적 또는 무한이라는 개념과 동일한 것으로서, 전후의 상황을 초극할 수 있는 유일한 공간<sup>40)</sup>을 의미한다. 고석규는 「여백

38) M. 블랑쇼, 박혜영 옮김, 『문학의 공간』, 책세상, 1990, 141쪽, 162쪽.

39) 남송우, 「고석규, 그 미완의 문학적 행보」, 『현대시학』, 1999. 3월호; 『고석규 문학전집 1』, 235쪽.

40) 문혜원, 『한국 현대시와 모더니즘』, 신구문화사, 1996, 268쪽.

의 존재성』에서 부정에 의한, 부정을 위한, 부정의 메타포를 긍정으로 받아들이며 그 부정 속에 내재된 새로운 긍정을 발견하고자 염원한다. 그것은 자기 자신의 내면을 들여다보는 것으로부터 시작된다. 따라서 고석규는 불안과 반항으로서의 주체의식을 뛰어넘어 ‘존재의 무(無)’ 속으로 점점 침잠해 들어간다. 중요한 점은 이 시에서 “파란 상화(傷花)”가 죽음을 상징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죽음의 실체에 대한 긍정적인 개시으로써, 적극적인 죽음으로 수용된다는 점이다. 인간은 무 앞에 서서 자신이 ‘죽음에 이르는 존재’임을 직관할 때 ‘불안에의 용기’를 취하게 되고, 모든 영원한 진리를 단념할 때 비로소 여러 가능성 중 하나를 선택하는 결단을 내릴 수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죽음에의 수용은 여백의 사상을 바탕으로 한 글쓰기로 나아간다.

저 물상의 주변(……)그것은 신과 인간의 아득한 지대일 것입니다  
(……) 여백은 존재를 증명하기 위한 부재의 표현에 지나지 않습니다.  
우리들 부정 속에 내재되는 새로운 긍정을 위하여.41)

고석규는 자연을 통하여 정적을 발견한다. 그것은 침묵이고 여백이다. 전쟁 속에서도 자연은 침묵하고 있지만 그들은 침묵을 통해 자신의 부재를 긍정으로 변환시키고 있는 것이다. 이 침묵의 여백은 “신과 인간의 아득한 지대”이다. 따라서 신의 부정을 통한 생의 여백은 상실의 흔적이며, 영원한 갈망의 표적이자 부재의 존재이다. 고석규는 여백의 공간을 통해 새로운 존재 가능성을 발견하고자 한다. 그것은 부정과 부재의 역설을 통한 존재의 가능성의 발견이다. 고석규에게 존재의 여백은 전쟁의 공포와 부조리 속에서 양심의 소리를 듣고, ‘존재의 부재’를 새롭게 자각하는 현존재의 ‘내면의 공간’이자 ‘실존의 공간’이다. 그러므로 고석규는 자신의 존재의 심연을 들여다보면서, 즉 죽음을 적극적으로 수용하면서

41) 고석규, 남송우 엮음, 『여백의 존재성』, 『고석규 문학전집 2』, 15쪽.

죽음이라는 여백의 존재성, 존재의 가능성을 다시금 재인식한다. 이 ‘여백’의 사상은 고석규 삶의 방향을 ‘초극’<sup>42)</sup>으로 전환시킨다. 결론적으로, 고석규 시의 초기 죽음의식은 ‘주도권을 상실한 죽음’인 레비나스의 죽음의식으로 경사되지만, 타자의 죽음과 죽음의 자각을 통해서 고석규는 ‘죽음’을 인간의 본래적 가능성으로서의 ‘자유’로 인식하게 된다. 그리고 점점 더 하이데거의 죽음의식으로 다가간다. 따라서 고석규는 ‘죽음’을 ‘죽음에의 선구(先驅)’<sup>43)</sup>로 자각한다. 이것이 바로 고석규 삶과 문학의 ‘여백’의 사상이다.

본 연구 결과를 정리하자면 다음과 같다. 첫째, 고석규 시의 특성은 전쟁체험을 통한 사실적인 공포체험과 장중하고 극적인 묘사를 동반한 산문시, 섬뜩한 육체의 불구화의 시적 형상화이다. 둘째, 고석규 시의 공포는 직접 군인으로 참전하면서 겪은 것이므로 공포가 더욱 극대화되며, 타자의 죽음으로 인한 공포체험은 인간의 폭력성과 휴머니즘의 상실감, 웃음과 울음의 양가적 불안의식으로 형상화된다. 셋째, 고석규는 전쟁이라는 상황 속에서의 인간의 폭력성과 휴머니즘의 상실감을 통해 허무의식과 소외의식에 사로잡힌다. 따라서 그는 자신의 육체를 불구화하여 스스로를 이미 죽어 있는 존재로 인식하며 타자의 죽음을 자신의 죽음으로 자아화 한다. 그러나 그는 삶과 죽음이 공존하는 전쟁의 현실 속에서도 양심의 소리를 듣고 결단을 감행하는데, 그것은 바로 반항의식으로 발현된다. 넷째, 죽음과 전쟁에 대한 반항의식은 ‘나는 왜 살아 있는가’

42) 고석규에게 ‘초극’은 죽음의 심연을 통과한 자, 즉 늪 속에 발이 빠질 때도 재빨리 성채 속으로 도피하고 성채 속에서 파란 상화를 피우기, 그로 인한 숨 막히기 직전에 다시 모더니티를 향해 성채를 탈출하기, 그러한 반복행위이자, 위기 극복 방식을 말한다. 김윤식, 앞의 글, 45쪽.

43) 하이데거는 ‘죽음에의 선구’를 현존재인 인간이 유한성의 극한인 죽음을 초월할 수 있기 위해서는 죽음보다 앞서 죽음에게로 달려가 그 죽음을 직시하고 그것을 통하여 죽음이라는 유한성의 삶을 받아들이고, 그로 인하여 그는 현재의 삶을 성실하게 살아가게 된다고 말한다. M. 하이데거, 이기상 역, 『존재와 시간』, 시간과공간사, 1988 참조.

라는 자신의 실존에 대해 되묻게 하고 그러한 물음은 그로 하여금 실존적 글쓰기를 유도하였으며, 실존적 글쓰기는 죽음을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적극 수용하는 ‘여백’의 글쓰기에 다다른다.

고석규에게 있어서 여백의 글쓰기는 전쟁의 참혹한 상황 속에서도 자신의 내면에서 들려오는 양심의 소리를 듣고 자신을 반성하여 공포와 부조리와 죽음을 뛰어넘는 죽음을 초극하는 실존의 글쓰기였다. 여백의 사유를 통해 고석규는 전쟁의 공포와 죽음으로부터 벗어나 보다 높은 초극의 세계를 모색하였다. 이러한 모색의 정점에 여백의 사상이 존재하며, 그것은 고석규가 죽을 때까지 지키고자 하고 했던 존재의 물음에 대한 노력의 소산이었다.

## 참고문헌

### 1. 기본자료

- 고석규, 남송우 엮음, 『고석규 문학전집 1-5』, 마을, 2012.
- \_\_\_\_\_, 『오늘의 문예비평』동인 엮음, 『청동의 관』, 책 읽는 사람, 1993.
- \_\_\_\_\_, 『오늘의 문예비평』동인 엮음, 『청동일기』, 책 읽는 사람, 1993.
- \_\_\_\_\_, 『오늘의 문예비평』동인 엮음, 『실존주의』, 책 읽는 사람, 1993.
- \_\_\_\_\_, 『오늘의 문예비평』동인 엮음, 『고석규의 면모』, 책 읽는 사람, 1993.

### 2. 논문

- 강윤희, 『한국전후소설의 그로테스크 연구- 장용학, 손창섭, 최상규 의 소설을 중심으로』, 서강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01, 1쪽.
- 김예리, 『고석규의 에세이적 글쓰기와 ‘바깥’의 사유』, 『한국근대문학연구』 26집, 한국근대문학연구회, 2012, 363-364쪽.
- 조영복, 『공포 체험의 시적 변용과 그로테스크의 시』, 『한국현대문학연구』 3집, 한국현대문학연구회, 1994, 270쪽.
- \_\_\_\_\_, 『1950년대 모더니즘 시에 있어서 ‘내적 체험’의 기호화 연구』, 서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1992.
- 박슬기, 『한국 전후시의 그로테스크 시학연구: 박인환·고석규·전봉건을 중심으로』, 서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4, 13쪽-56쪽.
- 하상일, 『1950년대 고석규 시 연구』, 『한국문학이론과 비평』 제23집, 한국문학이론과 비평학회, 2004.
- \_\_\_\_\_, 『고석규 문학의 근대성 연구』, 부산대학교 석사학위논문, 1999.
- 한혜선, 『한국현대 소설의 인물연구-신체적 결손 징표를 중심으로』, 이

화여자대학교 박사학위논문, 1991, 18쪽.

### 3. 기타자료

- 구연상, 『공포와 두려움 그리고 불안』, 청계, 2002, 343쪽.
- 김경복, 『자폐와 심연에서의 빛 찾기』, 『오늘의 문예비평』, 1993 겨울호, 242-257쪽.
- 김윤식, 『전후문학의 원점』, 『문학사상』, 1992 7월호, 45-332쪽.
- \_\_\_\_\_, 『50년대 비평 감수성의 기원-고석규의 정신적 소묘』, 『한국 현대문학사상사론』, 일지사, 1992.
- 남송우, 『짧은 삶과 미완의 시학』, 『고석규 문학전집 1』, 마을, 2012, 221쪽.
- \_\_\_\_\_, 『고석규, 그 미완의 문학적 행보』, 『현대시학』, 1999 3월호, 235쪽.
- 문혜원, 『한국 현대시와 모더니즘』, 신구문화사, 1996, 268쪽.
- 박태일, 『전쟁 속에 얼어붙은 꽃봉오리』, 『고석규 문학전집 1』, 마을, 2012, 258-263쪽, 258-263쪽.
- 이영섭, 『50년대 남한의 현실인식과 시적현상』, 『1950년대 남북한 문학』, 평민사, 1991.
- 조영복, 『한국 현대시와 언어의 풍경』, 태학사, 1999, 184-193쪽.
- G. 슈리, 장혜경 옮김, 『피의 문화사』, 이마고, 2002, 50쪽.
- J. P. 사르트르, 박정태 역, 『실존주의는 휴머니즘이다』, 이학사, 2008, 128쪽
- J. R. Clark, *The Modern Satiric Grotesque and its Tradition*, Lexington, The Univ. Press of Kentucky, 1991, pp.7-26.
- K. Wolfgang, *The Grotesque in Art and Literature*, McGraw-Hill Book Company, 1966, pp.184.
- M. 블랑쇼, 박혜영 옮김, 『문학의 공간』, 책세상, 1990, 141-162쪽.

- M. 하이데거, 이기상 역, 『존재와 시간』, 시간과공간사, 1988.
- O. F. 블로우, 최동희 옮김, 『실존철학 입문』, 자작아카데미, 2000, 17-135쪽.
- P. 톰슨, 김영무 역, 『그로테스크』, 서울대출판부, 1986, 52쪽.
- R. M. 릴케, 천광진 역, 『로댕』, 여원교양신서, 1960, 39쪽.
- S. 키에르케고르, 박병덕 옮김, 『죽음에 이르는 병』, 비전북, 2012, 41쪽.
- S. 손택, 이재원 옮김, 『은유로서의 질병』, 이후, 2002, 36쪽.

<Abstract>

## Ko Suk-gyu's world of death and his thought of empty space

Jung, Won-suk

This study attempts to consider the world of horror, anxiety and death shown in Ko Suk-gyu's poems. He defected to South Korea due to personal ideology when he was young and he entered the war as a soldier. Consciousness of horror, anxiety and death he experienced through the war was due to the horror that he might soon be killed on the battlefield, facing death of soldiers. Human violence and loss of humanity which he experienced on the battlefield was deeply stamped on his mind so that it distressed him. He was hurled into the irrational reality where the living and the dead coexist. This irrationality causes intense anxiety so that this anxiety was expressed in ambivalent ways of laugh and weeping. These patterns were expressed in the various forms of self-defence, catharsis, madness, etc.

Go Suk-gyu realized in anxiety the fact that he was a being towards death and he felt the futility about death, that is to say human finitude and a sense of self-alienation. Also he faced a lot of the dead bodies and horror, wandering in the city streets in ruins. And he recognized that his mind was ready dead and that his body was fully ruined, acknowledging that his body was fragmented state, that is deformed body. And he deeply thinks what is life and what is

death. Through this thinking, he listened voice of conscience in the form of silence in his inner side.

That is not fleeing from death but fighting against death. That is anticipation to death. And he went out into the world of criticism across the route to poem. That is to have new understanding about the world of horror and death which he could not overcome in his poetic worlds. His new understanding was not that death is nothing where anything is nonexistent but that death is empty space where silence exists, that is to say empty space filled by absence. Man can acquire the possibility of existence to fill the empty space because empty space exists. His writing on the basis of concept of this empty space was a possibility that he could transcend horror and irrationality, and then transcend even death.

Key Words : war, horror, anxiety, death, irrationality, futility,  
self-alienation, empty space

■ 논문접수 : 2015년 11월 3일

■ 심사완료 : 2015년 12월 4일

■ 게재확정 : 2015년 12월 20일